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 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3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공고 인쇄과 첫 졸업생

해방 후 8년만에 인쇄업은 '시양산업'이라는 인식을 깨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성과물이 처음으로 이슈화됐다. 타 업종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기였다.

1958년 3월9일자(제68호) 인쇄문화시보는 당시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졸업생들을 비중 있게 다루며 당시 정부부처가 추진 중이었던 취업 관련 대책들과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취 총 '취업희망자 49명'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시보는 당시 검경하 인쇄협회 상무가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인 한기철군에게 인쇄협회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이를 치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출된 인쇄관련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인쇄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 구조가 산업 구조 내부에 팽배했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시보는 한 군(君)에 대해 인쇄기술 연수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임을 강조한 뒤 인쇄업계의 버팀목이 돼 줄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했다.

국산 오프셋 인쇄기 첫 개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프셋 인쇄기(명칭 미정)가 개발됐다. 인쇄문화시보(1965년 3월15일자)에 보도된 이 기사는 당시 국내 최대의 인쇄기기메이커인 송전기계제작소에 의해 오프셋 인쇄기가 개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보는 1년여의 연구 개발에 걸쳐 완성된 이 인쇄기에 대해 단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운전됐다는 의미보다는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기계 제작 부문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 쾌거라고 기술했다.

또한 '아직 외국제에 비하면 정밀도나 디자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인쇄기 제작 업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한 인쇄업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합별 신임 이사장 선출

3월은 서울 등 각 지방 조합들이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수장을

받아들이던 시기였다. 1970년 3월1일자(제404호) 인쇄문화시보는 서울 조합의 8회 정기총회를 1면 머리 기사로 내세우며 신임 이사장 선출 건과 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명단을 통합적으로 게재했다. 2월20일~26일까지 각 조합 단위별로 개최된 이사회 총회에서 당시 서울조합 이사장에는 한필호 흥문인쇄소 사장이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시보는 예산안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 통과 내용과 선출과정 등을 각 지역별로 상세하게 묶어 보도했으며 조합의 상황과 운영방안, 신임 이사장의 취임 일성을 다뤘다.

하지만 시보는 신임 이사장 선출이 단순히 명분론에 입각한 힘겨루기 싸움보다는 조합원들에게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조합의 역할이 우선이라고 지적한 뒤 '이사장은 이에 대한 중재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실 조합의 기준은?

1970년 3월15일자(제405호)에는 정부의 아전인수(我田引水)적인 행정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의미있는 기사가 게재됐다. 시보는 '출자금 증좌를 하지 않으면 부실 조합으로 등록돼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라는 머리 기사를 다루며 당시 상공부가 밝힌 근거에 대해 성토했다. 당시 상공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구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좌 불입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운영 사항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부실 조합으로 인정될 때에는 모든 행정 지원 대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같은 시책은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했다. 대기업의 출자총액한도를 제한해 부실 채권을 막고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지는 정부의 기업 선통 조이기가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시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정기총회 결과 등을 세밀히 파악해 대상 조합을 선별하겠다'는 상공부의 입장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별관세 전면 폐지

1973년 3월1일자(제472호) 인쇄문화시보는 1면 하단 기사에 '탄력관세제 적극활용 도입'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당시 환율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큰 국내 여건을 비중있게 다뤘다. 시보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당시 달러 약세화와 국내 물가 불안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 특별관세를 전면 폐지하고 수출용원자재수입에 대한 관세의 사전 면제를 환급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수입 물가 가격에 대한 안정을 그 첫 번째 이유로 들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수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보는 이 같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인용, "수출에서 세수(稅收) 감소가 볼 보듯 뻔하지만 내수 시장의 침체라는 약재까지 겹쳐 인쇄·출판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15세에 인쇄업 첫발

1974년 3월1일자(제493호) 인쇄문화시보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불도저형의 활동적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우정판사에서 근무하던 김호탁씨에 관한 내용이다.

시보는 김 씨(30)가 15세, 즉 약관의 나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이에 인쇄업에 뛰어 들어 이우정판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의미있게 다뤘다. 시보는 15년 동안을 같은 근무처에서 함께 일해 온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 씨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활판을 다루거나 거래처를 관리하는 모습이 마치 불도저를 연상케 하는 철저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3년간의 군 생활을 제외하고 12년을 이우정판사에서 근무했다. 인쇄업종이 CTP 등의 도입과 더불어 점점 더 다각화되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쉽고 편한 직업만 찾는 요즘 세대와 비교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보는 이 기사를 다루면서 인쇄 작업 환경이 먼저 변해야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기술 습득이 이뤄

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신문제작 공정의 전 자동화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 기술은 미국의 한 신문에 의해 세계 최초로 적용, 공개됐다.

1975년 3월15일 인쇄문화시보(제514호)는 미국 롱아일랜드와 뉴욕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석간지 뉴스데이의 입장을 인용해 뉴스 및 광고 부문에 224대의 디스플레이를 도입, 모든 타이프라이터를 배제하고 신문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보는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적용되던 자동 공정이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된 적은 있지만 기존에 사용되던 타이프라이터를 전면 배제한 것은 놀랄만한 기술 성과라고 호평했다. 현재 기술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지만 당시 설치된 224대의 비디오 디스플레이에는 330단어까지 스크린에 표시가 가능했다.

원고, 수작업 시대 마감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돼 왔던 원고 작업이 일본이 개발한 '레이올 시스템'에 의해 마감하게 됐다.

1980년 3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제629호)는 그동안 인력·비용의 낭비로 지적돼 왔던 원고 작업이 '레이올'의 개발로 획기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호평했다.

'레이올'은 종합·자동화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일본의 한 잉크회사와 인쇄 업체의 작업 공정을 포함해 2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보는 이 기계의 개발로 인해 10배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국내 도입 시 소량 다품종 시대를 요구하는 수요·공급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시 개발된 '레이올'은 ▶자동제지기 ▶마이크로컴퓨터 ▶클릭터디스플레이 ▶디지털타이저로 구성돼 있으며 자동제작데이터가 플로피 디스크에 자동적으로 입력된다.

〈장홍일 기자〉